

라디오 책 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두 매체의 특성 살리되, 서로의 가치 상승시킬 수 있는 공존 방법 모색해야

문자 매체인 책이 라디오라는 방송 매체와 결합했을 때 극대화되는 부분은 바로 청각이 환기하는 정서적 측면이다. 책 관련 라디오 방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낭독'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책 관련 방송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미 가치가 입증된 콘텐츠인 책을 활용할 수 있고, 문화적 차원의 공익 프로그램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청취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방송의 속성을 '공익성' 차원으로 극복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KBS·EBS 라디오국 제공

종이로 된 책, 귀로 듣는다

현재 공중파 라디오에서 일일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책 관련 프로그램은 KBS 1라디오의 <보이는 라디오 책 읽는 사람들>과 3라디오의 <연속낭독> <소설극장> <사랑의 책방> 그리고 EBS의 <책으로 만나는 세상> 등이다. 그 외에 KBS 2라디오 <라디오 독서실>, 3라디오 <3라디오 북카페>, SBS <유자효의 책하고 놀자>, EBS <책으로 여는 세상>은 매주 하루만 방송되는 책 관련 프로그램들이다.

이 중 KBS1의 <보이는 라디오 책 읽는 사람들>은 지난 4월부터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저자가 직접 자신의 책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의 김영준 PD는 "TV나 인터넷에 빼앗긴 책 읽는 시간을 회복하고 싶었다"고 기획의도를 밝히면서 "스튜디오 진행 모습과 저자 인터뷰 등 제작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KBS 홈페이지와 에스 24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단순히 음성 낭독으로는 제한적이었던 전달의 효율성까지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일 프로그램의 경우 '낭독'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청취자에게 책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책이라는 콘텐츠만이 가질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구성으로 청취자를 사로잡기도 한다. 지난 8월 신설된 EBS의 <책으로 만나는 세상>은 요일별로 인문, 문학, 실용 등 분야를 나누어 전문화된 서평을 선보일 뿐 아니라 음악, 영화, 만화 등 타장르와의 문화적 접점을 찾는 시도를 통해 청취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김준범 PD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콘텐츠를 직접 채워가야 하는데 책의 경우는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으니 좀 더 심도 깊고, 의미 있는 구성을 해보자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PD는 "책은 특성상 TV보다는 라디오에 더욱 적합한 장르"라며 "원전이 있는 경우 영화보다는 책이 사람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듯이 시각으로 이미 상상력을 제약해 버리는 TV보다는 청각으로 전달하는 라디오가 책을 통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책 프로그램 편성의 현실적 어려움

라디오의 책 관련 방송이 위의 프로그램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주일 중 하루나 이틀을 온전히 책으로만 구성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일일 방송 중 책 관련 코너를 매일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문화적 균형을 고려한 편성이라는 차원에서 책 관련 코너들을 운영한다.

MBC <오지혜의 문화야 놀자>는 매주 일요일 방영되는 1시간짜리 교양 프로그램으로 방송 중 10분의 시간을 할애해 '10분 안에 들려주는 좋은 책 한 권'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고, SBS <이숙영의 파워 FM> 또한 '최준영의 책 읽는 아침'이라는 코너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편성기획부의 한 PD는 "이런 코너들은 대부분 신간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책에 대한 '깊이 읽기'는 부족하지만 청취자들에게는 책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교양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이런 책 관련 코너의 편성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KBS <정용실의 문화포커스>의 서정협 PD는 "책을 읽지 않으면 코너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력과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주말 이틀 동안은 온전히 책 관련 코너로만 진행되는데 토요일은 전문 서평가의 신간 소개, 저자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고, 일요일은 한 권의 책을 정해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 PD는 "라디오 책 프로는 군더더기 없이 책 자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력이 크지만 제작진이 모두 그 책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우리 프로의 경우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의 담당 작가가 다르다. 진행자 또한 평소 책을 많이 읽는 편임에도 일주일에 2-3권의 책을 소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런 교양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했다.

제작진들이 꼽은 책 프로그램의 또 다른 어려움은 '저작권 문제'다. 과거 책 관련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어느 PD는 "작품이 방송에 나오면 작가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작품 홍보 차원에서 '혼쾌히' 허락하는 작가들도 많지만 작품 사용에 앞서 일일이 작가의 허락을 구하는 작업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다"고 털어놓았다.

성공적 공존 위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책 관련 프로그램의 가장 큰 어려움은 '청취율'이다. 공익성을 앞세운 프로그램들은 청취율에 목숨을 거는 방송가의 생리상 고전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다. KBS1 <책마을 산책>, SBS <시인의 마을>, MBC <라디오 책세상>, EBS <책과의 만남> 등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 방송되었던 책 관련 라디오 프로그램들이다. 이들 프



1 KBS의 <보이는 라디오 책 읽는 사람들>은 제작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와 예스24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 EBS의 <책으로 만나는 세상>은 요일별로 분야를 나누어 전문화된 서평을 선보인다. 사진은 진행자 명로진 씨



로그램은 청취율 저조를 이유로 결국 폐지되었다.

SBS <책하고 놀자> 경우도 처음에는 일일 낮방송으로 시작했으나 몇 번의 시간대 변동을 겪다가 최근에는 일요일에만 방송되고 있다. SBS 라디오

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김동운 국장은 "문화적 차원에서 '책'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청취율이라는 현실적 측면 때문에 일일 방송이나 낮 방송으로의 편성이 쉽지 않다. 하지만 책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늘 느끼는 문제이기에 (확대 편성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각 방송사들이 책 프로그램을 위성 DMB 라디오에 편성하는 것도 '취하지니 힘들고 버리지니 아까운' 이런 고민의 결과다. 매일 방송되는 책 프로그램이 없는 MBC와 SBS는 모두 DMB 라디오를 통해 전문 책 프로그램들을 내보내고 있다.

책과 라디오, 사람들은 분명 '듣는 책'을 통해서도 '읽는 책' 이상의 편안함과 감동을 느낀다. 라디오에 등장하는 '책'은 '종이 책'과는 또 다른 전달력과 접근성을 갖게 되고, 라디오 또한 '책'의 감수성으로 인해 더욱 확대된 문화적 파급력을 갖게 된다. 두 매체의 공존에는 분명 '승산'이 있다.

출판평론가 표정훈 씨는 책과 방송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책과 방송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사람들의 방송 시청 또는 청취의 시간이 늘어나면,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방송과 책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출판계와 방송계에서 도서 콘텐츠와 방송 콘텐츠가 각각의 매체 특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서로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